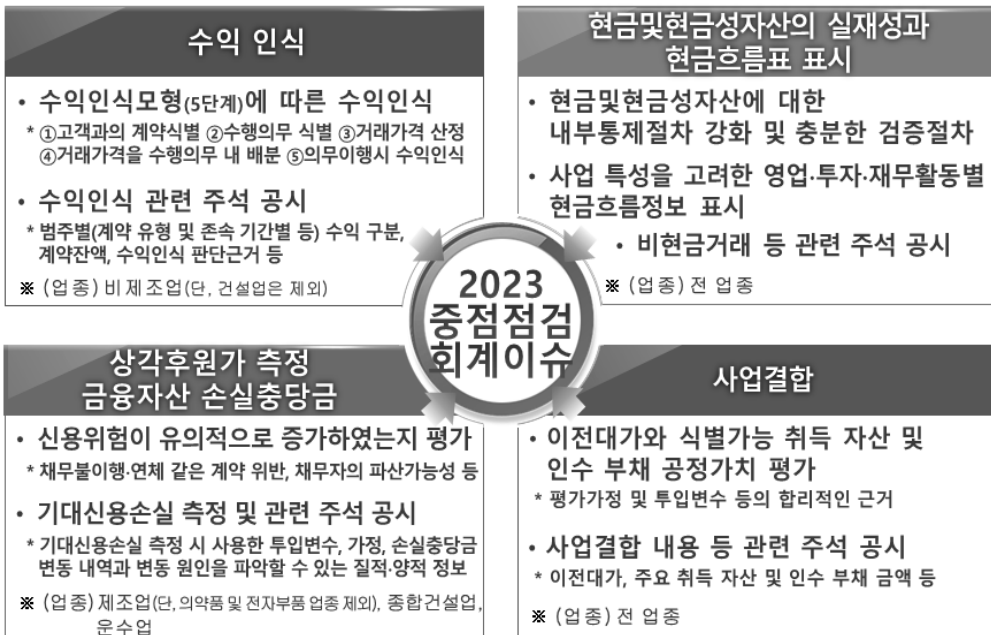


#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·업종 사전예고

— 국세청, 2022. 6

-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
-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\*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
    - \*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,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
  -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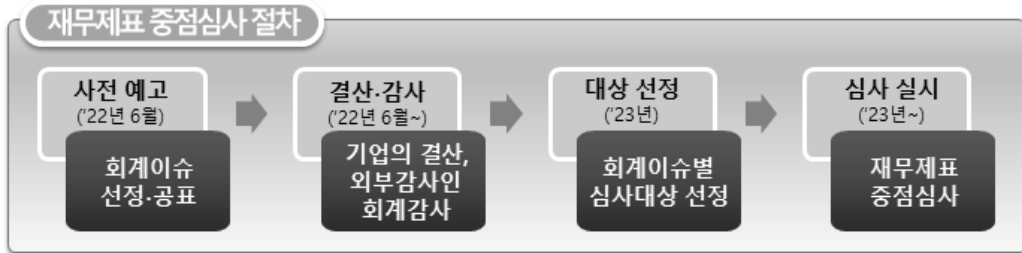
## 〈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〉





## I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사전 예고
  - 2022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3년 중에 회계오류 취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



※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

- 회사는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를 신중히 작성하고,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

## II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

### 1. 수익 인식

- (선정배경) 新수익기준(K-IFRS 제1115호)이 ‘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
  - 수익인식모형(5단계)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
- (대상업종) 비제조업(단, 건설업은 제외)
  - ※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 대분류 코드 중 C00000(제조업)과 F00000(건설업) 제외
  -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(건설업은 제외)의 수익 인식만 점검
- (선정기준)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
- (유의사항)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, 주

적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

①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

### 수익인식모형(5단계)

핵심원칙 ▶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	
<b>계약식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과의 실질 계약을 식별(의무, 권리, 지급조건, 상업적 실질, 대가의 회수가가능성)</li> <li>계약의 결합, 계약의 변경 등을 고려</li> </ul>
<b>수행의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에게 이전을 약속한 의무 식별</li> <li>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혹은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</li> </ul>
<b>가격산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</li> <li>변동대가, 유의적인 금융요소, 비현금대가,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</li> </ul>
<b>가격배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(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 등)</li> <li>거래가격의 후속 변동효과 고려</li> </ul>
<b>수익인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행의무를 이행할 때(또는 기간에 걸쳐) 수익인식</li> <li>고객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 이전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이행 시점 판단</li> </ul>

② 범주별(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 등) 수익 구분, 계약 잔액,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

#### 회계요류 예시

- A사가 육류를 수입하여 甲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
  - 수입육에 대해 ①재고보관책임이 甲사에 있고, ②A사가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, ③ 甲사가 국내 수요에 따라 A사에 수입 물량과 가격을 정해주는 등 A사의 수행의무는 동 거래를 주선하는 데 불과하므로
  - A사는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함
- B사는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(모바일 앱 등)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
  - 자사 플랫폼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(20%) 쿠폰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
  - B사는 해당 할인 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\*로 보아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매출에서 차감하여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매관리비(광고비)로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함

\* 가격산정 시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(예: 쿠폰이나 상품권)은 고객에 지급할 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



## 2.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

- (선정배경)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 
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·투자·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
  -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
- (대상업종)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
- (선정기준) 해당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(유가증권, 코스닥, 코넥스) 등을 감안하여 표본 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 선정
- (유의사항)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, 기업회계기준서(K-IFRS 제 1007호)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,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히 기재
  -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, 잔액 검증 절차(실사, 금융기관 조회 등)를 통해 실재성 확인
  - ②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영업·투자·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,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히 주석 공시

### 회계오류 예시

- ① C사 자금팀장 000은 장기간 업무를 전담하면서 상위 관리자의 검토·승인 없이 무단 출금, 매출채권 임의매각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후
  -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회계기록을 입력·조작하여 은행잔고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 기간 중 감사장을 비운 틈을 타서 조작된 은행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하였음에도
  - C사는 내부통제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과대계상함
- ② D사가 원유정제처리 사업을 위해 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회사의 미래수익을 창출할 자원 취득과 관련되므로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돼야 함에도
  - D사는 이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표에 표시함

### 3.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

- ☐ (선정배경)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(금리인상, 원자재가격 상승 등)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
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,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
-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\*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
- \*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(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 간 차이의 현재가치)의 확률가중추정치

- ☐ (대상업종) 제조업(의약품·전자부품 제외), 종합건설업, 운수업

#### 〈심사 대상 업종〉

분류 코드*	해당 업종
C00000(C21000 및 C26000 제외)	제조업(의약품 및 전자부품 제외)
F41000	종합건설업
H00000	운수업

\*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

-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
- ☐ (선정기준) 매출채권회전을 변동 추이,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
- ☐ (유의사항) 금융상품기준서(K-IFRS 제1109호)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,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
- ①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\*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(12개월 혹은 전체)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
- \* 예시) 채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, 채무불이행·연체 같은 계약 위반,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·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
- ②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, 가정의 근거,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·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

#### 회계오류 예시

- ① E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으로 시행사 甲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사와 甲사는 미분양 물건을 대규모 할인을 통해 빨리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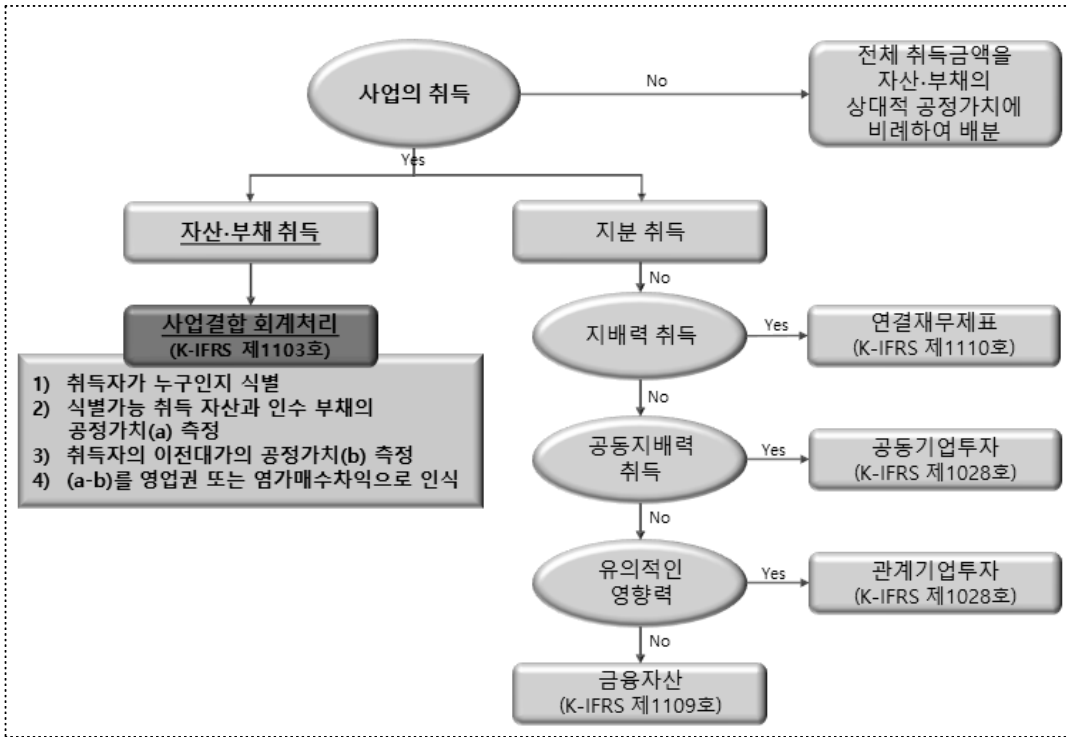


- 그 과정에서 甲사는 E사에 할인된 분양대금 및 필요경비를 반영한 예상 자금수지표를 통해 공사대금 전액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에도
  - E사는 해당 공사미수금에 대해 甲사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
- ② F사는 거래처 乙사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관련하여 ①완전자본잠식, ②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, ③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발생 등 乙사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다수 존재하였고
- 담보로 받은 설비자산도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
  -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

#### 4. 사업결합

- ☐ (선정배경) 최근 사업 다각화,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\*하는 추세이며, 그 방법(지분인수·영업양수도·합병 등)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
  - \* 「'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」(공정위, '22.3.30.)에 따르면, '21년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.7%(248건) 및 66%(138조원) 증가
-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,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·부채의 공정가치 측정,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
- ☐ (대상업종)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
- ☐ (선정기준) 사업결합 여부,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
- ☐ (유의사항)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,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
  - 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\*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
    - \* 사업의 구성요소인 ①투입물 ②과정 ③산출물 중 최소한 '투입물'과 '과정' 요소가 필요
  - ②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,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

### 사업결합 회계처리 여부 판단



### 회계오류 예시

- ① G사는 영업망 강화를 위해 동일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자 甲사의 특정 지역 사업부를 취득하였는데, 이때 G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·의원과의 거래관계만 인수했으므로 이는 사업의 취득이 아닌\* 무형자산(고객관계) 취득으로 처리해야 함에도
  - \* 甲사는 고객관계만 양도하고 영업 인력 등은 철수시켜,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 중 ‘과정(예시: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)’을 미충족
  - 해당 거래를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\*\*으로 판단하고 인수대가 중 해당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금액 초과분을 자본잉여금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함
  - \*\* G사는 K-IFRS에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사 기준서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(동일지배거래)을 적용
- ② H사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면서 이전대가,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·부채 현황, 비지배지분금액 등 중요 사업결합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



## 향후 계획

-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
  -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코넥스협회,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,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·홍보 실시
- 금융감독원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

## 붙임 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

## ① 수익 인식

- K-IFRS 제1115호(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)에서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\*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,
  - \* (5단계) ① 1단계 :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, ② 2단계 : 수행의무를 식별, ③ 3단계 : 거래가격을 산정, ④ 4단계 :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, ⑤ 5단계 :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(또는 기간에 걸쳐) 수익을 인식

## 수익인식모형(5단계)

- (1) 계약의 식별 : 의무, 권리, 지급조건, 상업적 실질, 대가의 회수가능성
  -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
  -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가능
  -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가능
  -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, 시기,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적 실질 존재
  -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
- (2) 수행의무식별 :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
  -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(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)
  -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(예시 : 진행률 측정대상)
- (3) 거래가격의산정
  - 변동대가(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사용)
  - 유의적 금융요소(현재가치로 측정)



- 비현금대가(공정가치 측정 원칙)
-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(수익차감 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)

(4) 거래가격의 배분

-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
- 할인료(모든 수행의무에 배분 또는 일부 수행의무에 배분)

(5) 수행의무이행

- 한 시점에 이행
- 기간에 걸쳐 이행
  -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소비
  -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
  - 기업 대체적 용도 없고, 수행완료 부분에 지급청구권

-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, 시기,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, 계약 잔액,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

**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**

- ☐ K-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표현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규정
- ☐ K-IFRS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,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현금흐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제1007호(현금흐름표)에 따라 현금흐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
- ☐ K-IFRS 제1007호(현금흐름표)에서는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,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각각의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

**현금흐름 활동 구분**

- 영업활동은 재화와 용역의 판매·제공 및 구입 등 주요 수익창출활동
- 투자활동은 유·무형 자산과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한 활동
- 재무활동은 지분상품 발행, 차입 및 상환 등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

-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, 채무의 지분전환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



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 비현금거래,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, 사용이 제한된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

### ③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

- K-IFRS 제1109호(금융상품)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\*에 대해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,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,

\*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,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(이하 '원리금지급')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

※ (간편법)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,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·계약자산,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·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

####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

-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
  - 화폐의 시간가치
  -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,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
-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,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, 연체정보,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
- K-IFRS 제1107호(금융상품: 공시)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, 시기,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
-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, 가정,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
  -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,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, 질적 정보
  -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

### ④ 사업결합

- K-IFRS 제1103호(사업결합)에서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한 경

우 취득법\*을 적용하도록 규정

\* 취득자 식별 → 취득일 결정 →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, 인수 부채,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→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

### 사업의 정의

-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
  - (1) 투입물 :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
  - (2) 과정 : 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, 표준, 프로토콜, 관례, 규칙
  - (3) 산출물 :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,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것
-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중 우발부채, 법인세, 종업원급여, 주식기준보상거래, 매각예정자산 등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,
 

취득일 현재 ① 이전대가,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,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②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간 차이금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또한,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,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, 취득한 수취채권 금액 등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

## 붙임 2 회계이슈 선정 현황('14~'22년)

대상회사 선정연도	중점점검 회계이슈
2014년	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(영업권, 개발비)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
2015년	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·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
2016년	⑨ 미청구공사(초과청구공사)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·비유동 분류의 적정성



2017년	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·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
2018년	⑰ 개발비 인식·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(수주산업 제외)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
2019년	㉑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㉒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㉓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㉔ 무형자산 인식·평가의 적정성
2020년	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충당부채·우발부채 등의 인식·측정 및 관련 주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(조선·건설 외)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·비유동 분류의 적정성
2021년	㉙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㉚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(영업권, 개발비 제외) ㉛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
2022년	㉝ 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의 적정성 ㉞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의 적정성 ㉟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㊱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의 적정성

###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화 명	6월 24일(금)	6월 27일(월)	6월 28일(화)	6월 29일(수)	6월 30일(목)
미 달 러 (USD)	1300.70	1299.40	1285.60	1284.90	1292.90
일 본 엔 (JPY)	964.66	961.27	949.87	944.26	946.45
영 국 파 운 드 (GBP)	1595.63	1597.48	1577.11	1565.97	1567.32
캐 나 다 달 러 (CAD)	1001.77	1008.15	999.07	998.17	1003.03
홍 콩 달 러 (HKD)	165.71	165.54	163.83	163.76	164.77
위 안 화 (CNH)	193.77	193.97	192.07	191.92	192.75
유 로 화 (EUR)	1369.25	1373.86	1360.04	1352.49	1350.05
호 주 달 러 (AUD)	898.26	903.86	889.89	887.80	889.52
싱 가 폴 달 러 (SGD)	935.59	937.75	927.73	925.89	927.97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295.23	295.18	291.92	292.22	293.86